



동신대, 학생이 행복한 대학·강한 지방대학 '도약'

10년 이상 우수한 취업 성과를 이룬 동신대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한, 강한 지방대학으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7월 15일 취임한 이주희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 대학, 구성원과 끝까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이론보다 실천 중심 교육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동신대의 장점을 더욱 키울 방침이다.

2022년 1월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동신대 취업률은 65.2%로, 광주·전남지역 졸업생 1천 명 이상 일반대학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1%보다도 높다. 동신대는 취업률에서 지난



이주희 총장

2011년 발표 이후 10년 이상 1위 자리를 지켰다.

취업의 질적 수준도 우수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에

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같은 기간 7급 수습공무원을 비롯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장교, 전문상담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등 공

무원 228명을 배출했다.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바탕으로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과·작업치료학과·언어치료학과 등 보건 계열 학과의 취업 성과도 눈에 띈다. 이 학과 출신이 지난해 54명, 2020년 50명씩 대학병원과 수도권 대형 병원에 취업했다.

동신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140여 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실천 중심 교육, 하이브리드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일리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동기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신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동신대는 ▲ 한의학 연구, 바이오센터, 국가지원사업, 특성화 연구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지원 ▲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사회와 공유 ▲ 지역 소외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안전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민 특성과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신대가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지 역할은 물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군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희 총장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❶

나를 키워주는 대학!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멈춰섰지만
꿈이 있는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
어제보다 더 멋진 나를 위해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갑니다.

성장하는 나
그런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최근 3년간 (2019~2021)
공기업 정규직 33명 취업, 공무원 228명 취업!

졸업생 1천명 이상 일반대학 중 최근 12년 중 10년간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9, 2020, 2021, 2022

광주·전남 취업률 1위!
(교육부 정보공시 기준)

교육부 · 대학혁신지원사업 · LINC 3.0(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 IPP형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서남권허브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 사업 · 전라남도 ·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5개 과정 · 중소벤처기업부 ·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 · 과기부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 2022 바이오 · 의료기술개발사업